

테니스 호주오픈 후원 20년 동행 기아, 대회 운영 차량 130대 전달



기아가 호주오픈 후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기아는 7일 호주 빅토리아 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 및 호주오픈 관계자, 닉 키리코스 선수, 달린 알콧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1 호주오픈 대회' 공식 차량 전달식(사진)과 신규 로고 공개 이벤트를 가졌다.

기아는 대회 운영을 위해 쏘렌토 70대, 카니발 50대, 니로 10대 등 총 130대의 차량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기아는 호주오픈의 유일한 메인 스폰서 권한을 활용해 전세계 고객에게 새롭게 바뀐 기아의 CI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 'Movement that inspires'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회 현장에 대형 LED 부스를 설치하고 역동적인 미디어아트를 통해 기아의 새로운 CI, 브랜드 방향성, 글로벌 홍보대사 라파엘 나달 선수 소개, 친환경차 라인업 등을 대회 방문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호주오픈을 맞아 글로벌 고객을 라파엘 나달과의 가상 테니스 랠리에 초대하는 'Make Your Mov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파엘 나달과 인플루언서들의 가상 테니스 랠리를 통해 글로벌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형식의 프로모션이다.

기아 관계자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과 20년간 동행하면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 기아 브랜드와 호주오픈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다양한 영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벤츠 7세대 S-클래스 가격 1억4060만원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인 7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이하 더 뉴 S클래스)'가 올 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세부 라인업 및 가격을 공개했다. 7세대 더 뉴 S클래스는 ▲더 뉴 S 350 d(1억4060만 원), ▲더 뉴 S 400 d 4MATIC(1억4060만 원), ▲더 뉴 S 500 4MATIC(1억8860만 원), ▲더 뉴 S 580 4MATIC(2억1860만 원) 등 4종을 먼저 선보인다. 2020년형 S 350 d 4MATIC 모델이 1억346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가격은 상당 폭 인상됐다. 하지만 편의 및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분은 상쇄하고도 남는다. 우선 자율주행 능력이 한층 진화해 레벨3(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자율주행 능력을 갖췄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라이트(DIGITAL LIGHT) 기술을 적용한 헤드램프다.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전 모델보다 더욱 선명해진 고해상도 조명 시스템이다. 주행 기술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리어-액슬 스티어링(rear-axle steering) 기술의 탑재다. 스티어링(운전대)을 돌리면 주행 속도에 따라 뒷바퀴 휠의 각도가 함께 자동 조절되어 더욱 편안하고 민첩하며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BMW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보니



BMW 4시리즈의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인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새롭고 우아한 수직형 BMW 키드니 그릴을 적용해 낯선 디자인이 주는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BMW 후륜 구동 쿠페가 빛어내는 특유의 운전 재미도 날카롭게 살아있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신이 내린 밸런스'...저속부터 편드라이빙 짜릿

낯선 디자인? 전면부 더 입체적 젖은 노면에서도 코너링 안정감 정교한 서스펜션...퍼포먼스 쿨

새롭고 낯선 디자인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잘 만든 디자인이라면 결국 브랜드를 상징하는 헤리티지가 된다.

BMW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이하 뉴 420i 쿠페) 시승기를 디자인 애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2013년에 처음 선보인 BMW 4시리즈의 풀체인지 모델인 2세대 4시리즈에 완전히 새로운 수직형 BMW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세로로 긴 이 그릴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호오가 갈리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뉴 420i 쿠페를 눈앞에서 직접 보며 입체감을 느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낯설이 선사하는 새로운 긴장감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수직형 그릴은 공기저항을 감소시켜 연비와 성능에 도움을 주는 에어 플랩 컨트롤, i캠, 센서, 라이더 등 많은 기능을 담고 있다.



내부 디자인

●디자인 자체가 곧 퍼포먼스다

디자인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내 공간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쿠페 모델은 디자인이 곧 퍼포먼스가 되는 차종이기도 하다. 3시리즈 세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3시리즈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편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3시리즈보다 크게 작다는 느낌은 없다. 길이는 130mm, 폭은 27mm, 휠베이스는 41mm 늘어나 실내 공간이 이전 모델보다 더 여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차체 높이는 3시리즈의 전고(1435mm)보다 훨씬 더 낮은 1385~1395mm로 세팅되어 있다. 전고를 낮춰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주행 퍼포먼스도 더욱 다

이내막하다.

차체 경량화를 위해 보닛과 후드, 앞 펜더를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했으며, 프론트 엔드와 리어 액슬 부분에는 맞춤형 바디 스트럿을 적용해 코너링에서의 비틀림 강성과 밸런스를 높였다.

뉴 420i 쿠페는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스텝트론닉 스포츠 자동변속기가 조합되어 있다. 제로백은 7.5초다.

후륜구동 차량인데다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녹은 눈으로 노면이 젖어있는 영종도 일대의 도로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8단 스텝트론닉 변속기는 자동 모드

BMW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공차 중량 (kg)	1,595
전장/전폭/전고 (mm)	4,770 / 1,845 / 1,385
휠베이스 (mm)	2,850
엔진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배기량 (cc)	1,998
최고 출력 (마력)	184 / 5,000
최대 토크 (kg·m)	30.6 / 1,400~4,200
안전 최고 속도 (km/h)	240
0-100 km/h 도달 시간 (초)	7.5
공인 표준 연비 (km/l)	복합 11.5(도시 10.3, 고속 13.5)
가격 (원)	5940만 원

에서도 순발력이 있지만 매우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패들슈프트를 사용해 수동 모드로 운전하면 더욱 재미있다.

워낙 밸런스가 뛰어나고 가속 토크가 좋아 저속에서부터 빠르게 치고 나간다. 제로백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가벼운 공차중량과 콤팩트한 차체 덕분에 훨씬 더 짜릿한 편드라이빙이 가능하다.

BMW라는 브랜드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인 정교한 핸들링과 민첩성을 강조하도록 정밀하게 튜닝된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주행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차가 바로 뉴 420i 쿠페다. 뉴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의 가격은 5940만 원(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가격)이다.

영종도 | sereno@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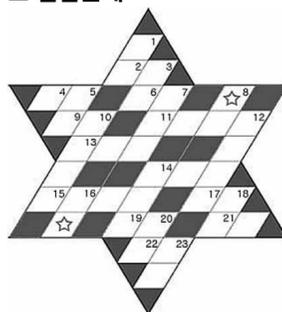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2	9	3		6	5		
8			2		7		3	
3			6					1
	1						9	
5		4			7		3	
	9						2	
4			2					7
	7		1		6			5
	3	8		4		9	6	

■ 스도쿠정답

2	9	6	5	7	1	8	3	4
8		1	6	2	9	3	7	5
3		8	1	9	4	5	6	2
	1						9	
5		4			7		3	
	9						2	
4			2					7
	7		1		6			5
	3	8		4		9	6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2. 물건을 창고에 넣음. 04. 성명·주소·직업 등을 적은 종이쪽. 06. 자 신만이 옳다고 행동하는 일. 09. 라디오 드라마나 영화의 음성 녹음 따

위에 출연하는 배우. 11. 그림의 띠. 13. 옛 제도를 지키기를 주장하는 당파. 14. 한 개인의 형편. '오신오' 15. 여러 조각으로 마구 찢는 모양. 17. 동, 서, 남, 북 네 방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9. 목이 부툼까지 올라 오는 가죽신. 21.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또는 그때의 어스름한 빛. 22.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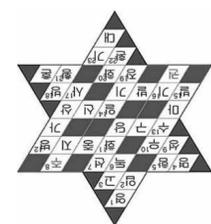
■ 세로열쇠

01. 환영하여 맞아들임. 03.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로움. 05.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르는 소리. 07. 각 도의 관찰사가 사무를 보던 정당. 08. 작은 종잇조각. 또는 그런 데에 쓴 편지. 10. 쇠움과 말뚝이라는 뜻. 12. 군사 전문가도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